

# 저 외로움 속에 따뜻함을 알게 되면

- 안도현의 <외롭고 높고 쓸쓸한>(문학동네, 2004)을 읽고 나눈 책 대화 최종보고서

유현지, 전민기, 김태수, 이원종 광동고 2학년 10반 jinny9737@naver.com

외로움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뜻한다. 성격이 다른 외로움과 따뜻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어리 새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이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연탄 한 장 - 안도현*

이 구절은 안도현의 <연탄 한 장>이란 시의 일부분이다. 삶이란 자신을 으깨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안도현 시인. 이 부분을 보고 깨달았다. 누군가를 위해 연탄같이 불타오르고 재가 되어 쓸쓸하게 남은 그 모습 속에는 사실 외로움이 아니라 세상을 포근하게 안아주었던 따뜻함이 숨어있다는 것을 말이다.

여태까지 시집을 읽어본 적이 없다. 처음에 시집을 읽을 때는 ‘시집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잘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를 감상할 때에는 시 속에서의 상황을 떠올려보라는 조언을 토대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그려놓은 무대에 들어가 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었다. 하나의 시를 읽을 때마다 그 상황을 영화처럼 떠올려보며 그 장면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관찰자로서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 답답했던 마음의 문을 연 열쇠 같은 존재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 우리는 ‘줌’이라는 화상 회의 앱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화면 사이로 정적이 흘렀다. ‘이 상태로 시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그때, 민기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다들 준비해 온 자료를 꺼내며 한 명씩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색함은 점차 사라져 서로의 질문에 대답도 하고, 또 공감도 하며 대화의 힘을 얻어가기 시작했다.

민기: 애들아 안녕.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니까 새롭다. 저번에 우리가 회의를 통해 안도현의 <외롭고 높고 쓸쓸한>이라는 시집을 읽어 봤잖아. 이 시집에 실린 작품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시가 뭐였어?

태수: 나는 <나무>라는 시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 이 시가 우리 누나와 내 이야기 같았거든. 시에서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자신을 때려도 자라나는 새싹을 위해 버틴다는 구절이 있어. 우리 누나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나한테 힘든 모습을 보이지 싫어서 괜찮다고 하고, 넌 나처럼 힘들면 안 된다고 말해준 적이 있거든. 이 시의 나무처럼 누나가 나를 위해 든든하게 버터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가 나에게 와 닿았어.

현지: 오, 태수야. 나도 너와 같이 <나무>라는 시가 가장 좋더라.

태수: 그래? 너는 이유가 뭐야?

현지: 나는 이 시를 읽고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 이 시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시 사철 나무가 버티는 모습이 우리 부모님 같았거든. 나는 삼 남매 중 막둥이로 태어나 부모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딸인 나를 위해 고생하시며 버티시는 모습을 생각해보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어서 이 시가 마음에 와 닿았어.

원종: 나도 이 시를 읽고 부모님이 떠올랐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힘들어도 참고 버티는 것이 존경스러워. 나도 다음에 커서 우리 동생이나, 아니면 자식에게 그런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는 잠시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아마 우리 모두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가족을 생각하면 왜 이리도 마음 한 구석이 시린 것일까. 생각을 정리 한 후 민기가 이어서 말을 꺼냈다.

민기: 그렇구나. 나는 <법대로>라는 시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어. 왜냐하면 당대 현실의 부조리함을 제대로 비판하는 내용이 공감됐거든. 이 시에서 법대에 진학해서 판검사가 되는 것만이 조국을 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던 한 교수는 교원노조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파면이 됐어. 반대로 법대에 가서 판검사가 되는 것만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길임을 가르치던 다른 선생은 교원노조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나이 50에 교장 선생님이 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이 시가 사회의 부조리함을 비판하는 표현이 와 닿았어.

원종: 나한테 와 닿았던 시는 <신축 공사장에서>라는 시야. 이 시는 환경에 관련된 시인데, 난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가장 마음에 들었어.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근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산을 깎고, 터널을 만들고, 집을 짓고 있어.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작가가 비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어서 속 시원하기도 했어.

태수: 나도 이 시를 읽고 자연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즘 왕숙천 근처에 도로개발을 해서 예전의 모습을 많이 잃은 것 같아. 옛날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 물놀이를 자주 하러 가곤 했었는데.

민기: 공기 좋던 그때가 그리워진다. 지금은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심한 날에는 체육도 못 하잖아. 내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생각도 못한 일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개발로 인해 우리의 삶의 질은 나아졌지만, 예전의 깨끗

꼳한 모습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원종이가 선택한 시를 통해 여태까지 우리가 환경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막막함, 험난한 삶의 거름이 되어

시를 감상하다 보면 내용이 정말 좋거나 큰 위로가 되어서 나만 보기에야는 가까운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집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봤으면 하는 시에 대해 말해보기로 하였다. 요즘 친구들 사이에는 개인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문구를 올리는 것이 다반사다. 그곳에 올려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서로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시가 있을까?

민기: 애들아, 시집을 읽으면서 개인 소셜 미디어 프로필에 적어두고 싶은 구절이 있었어? 내가 먼저 이야기해볼게. 먼저 나는 '나를 끝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 붙어보고 싶은 것이다.'라는 구절을 프로필에 적고 싶어. 왜냐하면, 평소의 나는 뭐든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건 진짜 한계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 노력을 해 본 적이 없거든. 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절을 프로필에 올려두고 자주 보면서 점차 고쳐나가고 또 다른 친구들도 이 글을 보면서 뭐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자는 다짐을 해봤으면 해서 이 구절을 선택했어.

원종: 와 좋은 말이다. 나도 '이렇게 하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언가를 하거나. 성취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 이 구절을 자주 읽으며 마음을 다잡고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 이어서 내가 질문에 답해볼게. 나는 <기관차를 위하여>라는 시의 '기관차야 철길 위에 버티고 서 있지 말고 새 길을 만들어 달릴 때 너는 기관차인 것이다.'라는 표현을 프로필에 적어두고 싶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앞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누구든 한 번쯤은 들게 될 거야. 그때 가만히 주저앉아 포기하지 말고 기관차처럼 힘을 내서 앞으로 가자고 나에게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을 선택했어.

민기: 네가 앞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상황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어?

원종: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성적도 안 나왔고 이 성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네도 막막했던 순간을 알려줄 수 있어?

민기: 내가 막막했던 순간은 생활기록부를 보고 입학 사정관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해 봤을 때야. 나만의 활동이 하나도 없는데다가 독서, 동아리 등의 비교과 부문의 내용이 너무 빈약했거든. 그래서 이러다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될까 봐 막막했던 거 같아.

현지: 나는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을 때 정말 막막했어. 집 마당에서 강아지 두 마리를 키웠는데 잠깐 목줄을 풀어 놓았을 때 상추라는 강아지가 차 사고를 당했어. 태어난 지 석 달 밖에 안됐는데 나의 실수 때문에 죽은 거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 이제는 더 이상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상추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막막하고 슬프더라. 그 후로 다른 한 마리에게는 이런 불의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목줄 채우는 거에 신경 쓰고 있어.

다들 소셜 미디어 프로필에 적어두고 싶은 구절이 달랐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구절들의 공통점은 교훈을 주거나 힘을 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느낀 막막함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지나가다 프로필을 본 사람도 내가 느낀 위로, 교훈을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이다.

## 시를 통해 잠재적 가치를 생산하다

시를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지는 시를 읽는 이유가 위로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현지의 말에 동의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시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보았다.

민기: 너희에게 힘이 되는 시를 한 편 찾아서, 그 시에 나오는 인물이 어떻게 상황에 놓였는지, 그 인물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야기해 줄래?

태수: 나에게 힘이 되는 시는 <낡은 자전거>라는 시야. 이 시의 주인공은 자신의 자전거가 낡아서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균형을 잘 잡았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위로를 해 주고 있어. '나는 항상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아왔지?'라는 의문을 품고 살아온 나에게 지금까지 잘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 같아서 힘이 되었어.

현지: 오. 요즘처럼 공부로 무기력한 날에는 이 구절을 보면 힘이 날 거 같다. 우리 학교 친구들도 똑같이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들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불안해 할 텐데 이 구절을 소개해 주면 좋겠다.

민기: 나에게 힘을 주는 시는 <해와 달>이야. 왜냐하면 이 시에 나오는 인물은 고개를 넘어 해가 지고 달이 떠올라 세상을 골고루 비추는 것을 보기 위해 고개에서 만나는 호랑이에게 팔뚝을 때려 넘기고 또 다른 고개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발목을 떼어 주면서까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향해 달려 나가기 때문이야. 자신의 목표를 위해 무엇이든 희생하고 결국 목표를 이뤄 버리는 끈기와 열정에 감탄하였고 나도 무엇이든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되었어.

원종: 나도 이 시를 골랐어. 근데 너 나와 다르게 해석했네. 신선하다.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팔뚝이 뜯기고, 발목이 때릴 정도로 마음을 잡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 그런 정신력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네가 원하는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게 될 거야.

현지: 나는 이 시집에서 <마늘밭 가에서>라는 시에서 힘을 얻었어. 이 시에서 화자는 마늘밭에서 앉아 지금은 땅속에 있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마늘을 생각하며 나중에 이 마늘이 어떤 음식이 될지 상상해봐. 짬이 될 수도 있고 장아찌도 될 수 있는 마늘들이 세상을 꼭 껴안고 굶어지는 것을 상상하며 마늘의 무한한 변신과 가치를 표현해. 이 시를 읽고 현재의 나는 땅속에 있는 마늘과 같다고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될지 부모님도 모르고 주위 사람들도 모르고 심지어 나도 모르는 일이야. 이 시의 '마늘들이 세상을 꼭 껴안고 굶어가는 것을 생각합니다.'와 같은 구절처럼 현재의 일에 열심히 하며 나중에는 이 세상에서 꼭 껴안고 굶게 자라는 마늘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용기를 얻었어.

원종: 와 마늘이 그렇게 크는구나. 새롭게 알게 되었어. 나도 지금 커서 뭐가 될지 막막한데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꿈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시 대화를 하면서 친구들이 성적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느껴졌다. 심지어 현지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1위가 공부 때문이라고 한다. 학업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가는 학생들, 우리 모두 현재는 땅속에서 자라는 마늘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자신의 가치를 한정 짓지 말고 잠재적 가치를 품고 세상을 꼭 껴안고 굼게 자라나는 마늘이 되어보자.

## 낮선 마주침이 색다른 깨우침을 낳는다

시 대화 두 번째 날이 되었다. 줌으로만 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우리는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선생님의 말씀, 화면에서만 보던 얼굴을 직접 보며 시 대화를 하니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공감하는 말도 더 술술 나오며 태수가 재치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줘 이야기가 매끄럽게 잘 연결되었다.

태수: 애들아 안녕. 모두 시간 나서 다행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시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너희들에게 '아- 이럴 수도 있구나.'하고 깨우침을 주는 시를 찾아 왜 그런지 이야기해줘.

원종: 나는 <새 길>이라는 시를 골랐어.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한 사람이 먼저 걸었고,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걸으면서 만들어질 거야. 대부분은 처음에 걷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 하지만 이 시를 읽으며 꼭 자신이 길을 만들지 않아도, 뒤따라 걷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이 시에서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닐 거야. 하지만 현재 미래를 꿈꾸지만, 걱정이 되기도 하는 지금 시기에서는 이렇게 느껴졌어. 나중에 다시 읽고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고 싶기도 해.

민기: 너의 생각을 듣고 나니 꼭 첫 번째로 걷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태수: 나도 이 시를 읽었는데 원종이랑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 한 사람이 먼저 걸으면서 새 길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 나는 우리 전 세대 사람들이 먼저 역경과 고난을 새 길을 만드는 것처럼 먼저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깨우침을 주었어.

현지: 너희 말도 맞지만 나는 새로운 길을 처음으로 걷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 누가 걸어간 길을 가면 그 틀에 갇혀서 생각의 폭을 더 넓힐 수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우리가 시를 배울 때 해설을 본 다음에 시를 보면 그 틀에 갇혀서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야.

태수: 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현지야 너는 어떤 시를 읽고 깨우침을 얻었어?

현지: 나는 이 시집의 <이 세상에 소풍 와서>라는 시를 읽고 깨우침을 얻었어. 이 시에서는 '인간도 가장 오래 헤맨 자의 발바닥이 가장 독한 냄새를 풍기는 법'이라고 해. 평소에 부모님께 발 냄새가 나면 인상을 찌푸렸는데 부모님의 발 냄새는 힘든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고단한 일을 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이 시를 읽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생각과 마음의 몽클함을 느낄 수 있었어.

원종: 나도 이 시를 읽고 너와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부모님의 발 냄새나 땀 냄새는 부끄럽거나 싫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태수: 항상 발 냄새는 그냥 씻지 않아서 나는 더러운 냄새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현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참 내가 바보 같아지는 기분이다.

발 냄새, 생각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진다. 발 냄새가 나는 사람은 잘 안 씻어서 독한 냄새를 풍기는 줄 알았던 우리는 <이 세상에 소풍 와서>라는 시를 보고 반성하게 되었다. 민기는 발 냄새가 난다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열정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태수가 원종이에게 '내 발 냄새 좀 맡아봐. 나의 열정의 냄새야.'라고 말한다. 태수의 장난 덕분에 우리는 큰 소리로 웃으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 꼭 연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앞서 말했듯이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보면 연탄같이 활활 타오르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하며 삶이란 자신을 으깨는 일이라 한다. 과연 우리는 인생 살면서 연탄처럼 활활 타오르는 존재였을까? 누군가를 위해 나를 산산이 으깨본 적이 있을까?

태수: 다음으로 이 표현은 되게 멋진데 싫은 시를 찾아서 그 표현에 초점을 두고 설명해줘.

민기: 나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의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표현이 멋졌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말처럼 자신의 삶을 뜨겁게 불태워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상황을 잘 비판하고, 연탄재라는 소재로 개성적으로 표현해서 멋지다고 생각했어.

태수: 나도 민기 너랑 같게 그 표현이 되게 멋있었어. 너는 나와 조금 다르게 느꼈네. 같은 구절에서 서로 다르게 느낀 게 신기하다.

민기: 넌 뭐라고 받아들였는데?

태수: 난 그 구절을 무언가를 할 때나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원종: 요즘 유튜브 댓글을 보면 잘 알지 못하고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에게 훈수를 두거나 욕을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 네가 한 말처럼 어떤 분야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비판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현지: 맞아. 원종이 말처럼 요즘 익명성을 이용해 온라인상이라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많아. 그걸 볼 때마다 악플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그 콘텐츠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을 텐데.

요즘 인터넷상에서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 몇몇의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다. 하지만 익명이라는 무기를 든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은 신경 쓰지 않고 악플을 마구 퍼붓는다. 태수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며 이 때문에 최근에는 유튜브 댓글 창을 막아놓는 기능도 생겼다고 한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댓글을 달지 말자고 다짐하며 태수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갔다.

태수: 내가 찾은 시는 <연탄 한 장>이라는 시에서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 되지 못했네'라는 표현이 매우 멋졌어. 추운 겨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연탄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어서 이 표현이 매우 멋진 것 같아.

원종: 와! 옛날에 연탄이 중요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해석한 것이 되게 멋있다. 나도 이 시를 읽었는데 이런 생각은 못 했거든. 너도 커서 꼭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너의 가치를 찾았으면 좋겠어.

태수: 원종이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 좋다.

민기: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연탄 한 장처럼 남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지 못하는 자신을 비판하고 있어서 나한테도 공감이 되더라.

현지: 배려하는 삶 좋지! 근데 내가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봤는데 2018년에 한 남성이 가방을 빼앗긴 어떤 여성을 돕다가 폭행을 당했대. 그래서 경찰서에 갔는데 그 여성은 상황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 증거가 없어 폭행당한 남성이 억울해한 일이 있었다. 이런 거 보면 요즘에는 배려만 하고 살면 안 될 것 같더라.

민기: 헐. 나도 그 사건 들어봤어. 그 남자가 너무 불쌍하더라.

태수: 맞아. 남성분은 여성분을 도와주려다가 그렇게 됐는데, 정작 여성분은 진술을 하지 않으므로써 남성분을 돕지 않았잖아. 그 여성분도 여성분만의 진술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겠지만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어.

누구나 이 시에서 말하는 연탄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바로 냉철해진 사회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연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그래도 정말 좋은 일인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았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바로 '그렇다'였다. 냉철해진 사회에 따라 우리도 차가워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변화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일어난다. 우리부터 사회를 바꾸려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 그땐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어제 늦게까지 시 대화를 한 탓일까. 친구들 눈꺼풀이 무거워 보인다. 줌 화면 사이로 친구들의 피곤함이 전해진다. 그때 오늘의 진행자인 원종이가 박수를 치며 모두 힘내서 하자며 응원을 하자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시 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시를 읽다 보면 ‘누가 내 이야기를 시로 써놓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과 닮은 시가 있다. 우리는 그 시를 찾아보고 이야기해보았다.

원종: 자기 모습과 제일 닮은 시는 뭐라고 생각해?

민기: 이 시집에서 나의 모습과 가장 닮은 시는 <갈등>인 것 같아. 이 시에는 갈등을 주제로 말하는데 시 중에 ‘이래서는 안 돼, 안 돼 하면서 내 몸은 자꾸 꼬여가지요’라는 구절이 있어. 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나와 닮았다고 생각했어. 나도 선택을 할 때 계속 고민을 하며 내 안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와 같은 갈등을 겪어 결정을 못 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나와 닮았다고 생각했어.

태수: 너도 나처럼 결정을 못하고 갈등을 많이 하는구나. 요즘 이런 애들은 흔히 결정 장애가 있다고 해. 정말 선택은 어려운 것 같아. 무엇을 선택하든 항상 불안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난 단체로 선택하는 건 항상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는 걸로 따라가려고 할 때가 많아.

우리는 흔히 결정을 빨리 못하는 것을 ‘결정 장애’라고 말한다. 현지는 결정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최고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수십 번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는 신중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어서 현지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갔다.

현지: 이 시집에서 나와 제일 닮은 시는 <홍수>라는 시야. 어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됐었어. 하지만 자라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될 때가 오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이 시의 구절처럼 참고 참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도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와 제일 닮았다고 생각했어.

원종: 맞아. 지금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하기 싫은 공부만 계속 하고 있어. 난 이제 학생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있다는 증거였구나. 어렸을 때는 어른이 마냥 멋있고 부러웠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럽고,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도 많고. 커서 이런 어른이 되지 않도록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이 시기에 좋은 것을 보고 생각하며 올바르게 크고 싶어.

태수: 난 내 모습과 가장 닮은 시는 <이 늦은 참회를 너는 아는지>라는 시야. 이 시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한 일에 후회를 하며 자책하는 모습이 나와. 또 ‘나는 고쳐야 할 것이 많은 인간이다. 인간도 아니다.’라는 구절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후회할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말과 비슷해, 그래서 이 시가 나와 가장 닮았다고 생각해.

민기: 나도 너처럼 잘못된 일에 대해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이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현지: 사람은 다 후회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그걸 토대로 발전하는 것 같아. 나는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좀만 자고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으로 잠을 자는데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어. 잠을 자면 알람 소리도 안 들리더라.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면 ‘한심한

유현지'라는 생각을 하며 후회를 해. 그런데 이런 후회스러운 경험을 겪은 후에 나에게 맞는 공부 습관을 찾을 수 있었어. 나한테 맞는 시간 관리를 알고 나니 효율적으로 공부해 성적도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애들아, 후회스러운 일이 있으면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자!

단 한 번도 이렇게 진지하게 삶을 돌아본 적이 없는데 시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18년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시를 읽다 보니 감정에 젖어서일까? 친구들은 자신의 마음 깊이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낸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말을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고 친구들이 마음 속 깊이 숨겨 둔 아픈 경험을 알 수 있었다.

## 낮선 세상 속 우리를 위로하는 시간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를 읽는 이유는 위로를 얻기 위함이다. 우리 주위에 깊은 구멍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시를 읽어 보면서 누구에게 추천해 주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원종: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다들 조금만 더 힘내보자! 어떤 사람에게 이 시집을 권하면 좋을까? 자기 주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이번엔 내가 먼저 말해볼게. 나는 아빠에게 이 시집을 추천해 주고 싶어. 아빠도 이 시인과 같은 시대를 살았어. 그때 당시 힘들었던 시대 상황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등을 나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빠가 이 시집을 읽으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위로가 되실 거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내색은 안 하시지만 힘드실 거야. 이 시를 읽으며 마음을 다잡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

태수: 나는 원종이 너와 다르게 아빠한테 그때 상황을 잘 들어보지 못했어. 아빠는 항상 자신은 인기가 많았다, 친구들과 사이도 좋고 가족과도 행복했다는 이야기들만 해 주셨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빠도 너희 아빠와 똑같은 상황을 겪으셨을 텐데 '그때를 기억하기 싫거나 별로 좋은 때가 아니라 나한테 밝은 이야기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민기: 우리 부모님 또한 이 시대를 경험하신 세대이신데 이 시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해.

태수: 나는 이 시집을 엄마께 추천해 드리고 싶어. 우리 엄마는 시 읽는 것을 좋아하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안 좋아져서 회사 일로 많이 지치신 것 같아.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내가 이 시집을 읽으면서 많이 위로받았던 것처럼 우리 엄마도 이 시집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힘들더라도 버티다 보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싶어.

현지: 정말 좋은 생각이야. 말로 하면 표현하기 힘들 수도 있고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 이 시를 너희 어머니한테 소개해드리면 정말 기뻐하시겠다. 엄청 힘이 되실 거야.

원종: 시집으로 너의 마음을 엄마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네가

직접 엄마를 위해 시를 쓰거나, 힘내라고 직접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우리 요즘 학교에서 시 창작에 대해 배우고 있잖아? 이 기회에 엄마에게 시를 써보는 것도 좋겠어.

민기: 나는 이 시집을 내 동생에게 추천해 주고 싶어. 동생은 원래 뭐든 될 때까지 해보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아이였지만 최근 들어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바로 포기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 이 시를 보면서 힘들 때 버티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현지: 동생이 몇 살이야?

민기: 이번에 고등학교에 올라왔어. 17살이야.

현지: 고1? 와~ 고등학생이 되어서 많이 낯설고 힘들겠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갈 못 가고.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오빠인 네가 이 시집 추천해 주면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도 해 주면 동생한테 힘이 될 거야.

태수: 오빠 입장에서 그런 동생을 보면서 많이 가슴 아팠겠다. 나도 너의 동생처럼 포기하는 모습을 누나한테 보여준 적이 있을 텐데 우리 누나도 네가 동생을 보며 그랬듯이 나를 보며 그런 느낌이 들었겠다.

현지: 마지막은 내가 할게. 나는 우리 언니에게 이 시집을 소개해 주고 싶어. 지금 언니는 꿈을 이루기 위한 시험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처음에 품은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예전에는 무엇이든 하면 된다고 말하던 언니가 지금은 풀이 죽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 이 시집의 '마늘밭 가에서', '기관차를 위하여'와 같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시가 많기에 언니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어.

태수: 네가 언니를 많이 생각하는 마음이 이 글에서 느껴진다. 나도 너처럼 우리 누나가 풀이 죽은 모습을 보면 누가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많이 걱정되고 마음이 아프더라. 나는 형제란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알고 챙겨주는 사이라고 생각해. 네 언니가 꼭 이 시집을 읽고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원종: 네 언니는 정말 힘들 것 같아. 친구들은 다 놀고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공부하며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많이 속상하고 힘드실 거야. 이 시를 읽으면서 자신을 챙겨주고 힘이 되어주는 동생도 생각하고 시를 통해 힘도 얻어 원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 시 대화는 끝났어. 모두 수고 많았어!

원종이는 이 시집의 배경시대를 경험하신 아버지께, 태수는 코로나 시대 어려워진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머니께, 현지는 꿈을 이루기 위한 갈림길에 놓여 힘들어하는 언니에게, 민기는 요즘 의욕을 잃고 살아가는 동생에게, 우리는 모두 가족에게 이 시를 권해주고 싶어 했다. 겉으로는 씩스러워 티를 안내고 살더라도 다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참 따뜻해보였다.

‘외로움’, 참으로 반갑지 않은 감정이다. 뭔가 춥고 슬프고 쓸쓸함에 몸부림치는 장면이 연상된다. 하지만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선뜻 희생하고 배려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외로움도 존재한다. 우리는 외로움을 겪은 후에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외로움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는지에 따라 독이 되거나 득이 될 수 있다.